

## [QT 세미나] QT를 통한 내적 치유

이상규 목사 (온누리교회)/ 2000/ 페이지수: 2

성경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교리는  
묵상 속에서 비로소 그 치유적 능력을 마음 깊이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매일의 큐티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과 경쟁적 성장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신앙 생활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모든 헌신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강요나 율법적인 강박관념으로 행해지는 데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오류가 없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억압과 깊은 좌절감이 누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개신교 영성신학을 이끌고 있는 유진 피터슨은 “우리 시대의 목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개혁은 ‘마음에 대한 치유’라는 사역을 재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이 시대의 종교개혁, ‘내적치유’

솔직히 우리는 저 16세기의 종교개혁이 회복해 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개신교 사상의 본질로부터 많이 떠나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많은 응어리의 상처들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용납하여 표출하고 성경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상담이나 내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기는 했으나 그것이 종교개혁적 인식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며 하나의 유행적 프로그램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적되어온 상처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큐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 상담이나 내적 치유 세미나 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큐티야말로 강력한 내적치유의 원리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첫째, 큐티는 묵상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므로 지성적 인식보다 마음의 심층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 13)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 (눅 2:35)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치않는 생각들이나 욕구 또는 괴로운 감정이나 충동들을 감추기 위해 사용해온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벗기고 마음속의 문제를 ‘드러내는’ 내적치유의 전단계인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본질적 자기 갱신의 몸부림이 창출되는 것입니다(행 2:37).

## 주 오신 그 이유

둘째, 성경 메시지의 요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켜, 사 61:1)...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 19).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 곤고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교리는 묵상속에서 비로소 그 치유적 능력을 마음 깊이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매일의 큐티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경험한 치유의 간증들이 큐티 나눔방에서 나누어질 때 그 공동체 전체의 내적 치유 경험으로 심화 촉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골방에서 사회현장으로의 치유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 (2000. 1. 30)